

협회소식

본회, 도축장 돼지 홍수출하 자체 긴급요청

본회는 "전국 여러 곳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자 이동이 통제되고 돼지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이 도축장에 돼지를 홍수출하하는 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의 시·군지부에 양돈농가들이 돼지를 홍수출하하지 말고 정상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돼지가격이 장기간의 약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돼지콜레라를 이유로 홍수출하를 하게 되면 돼지가격이 급락해 양돈농가들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한편, 본회는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지역적으로 이동 통제되는 곳이 많아 단기적으로 볼 때 돼지출하가 여느 때보다 적어져 오히려 돼지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양돈농가들에게 평상시처럼 돼지를 정상적으로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는 이밖에도 양돈농가들에게 돼지콜레라 확산방지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1일 2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을 실시하고, 예찰강화와 의심축 발생시 즉시 협회나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고기 소비촉진 위해 TV광고 등 홍보 사업 적극 추진

농림부는 3월24일 "돼지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돼지 조기출하 움직임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돼지고기 소비확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본회와 농협 등과 함께 오는 3월26일부터 1개월간 KBS, MBC, SBS 등 TV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 250회를 방영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고기 안전성에 관한 리플렛을 제작, 전국의 식육판매점과 대형할인매장 등에 배부해서 소비자들에게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농림부는 양돈농가들에게 정상출하와 방역 강화를 당부하는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KBS 등 언론사에 '돼지콜레라 인체 무해' 제도 요청

본회는 3월22일 KBS 등 방송사와 일간지에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돼지고기 섭취를 기피하지 않도록 올바른

로 계도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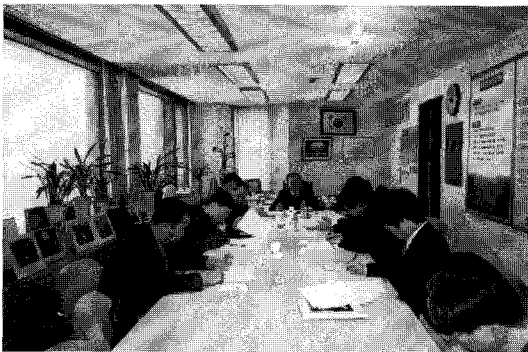
본회는 KBS, MBC, SBS, 연합뉴스, 조선·동아·중앙·한겨레·매일경제 등 중앙지 방송·통신사와 중앙 일간지에 "양돈농가들은 최근 8개월 이상 생산비 이하의 하락한 돼지가격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돼지콜레라까지 발생해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돈업계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대한양돈협회는 "돼지콜레라는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감염돼지는 모두 살처분·매몰하기 때문에 시중에 감염 돼지고기는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는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동물에도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모든 1만두 정부 기증 등 돈가안정 대책 본격 추진

-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본회는 돼지가격이 장기간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고, 양돈농가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돼지가격 회복을 통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1만두를 모아 정부에 기증기로 하는 한편, 정부수매를 요청기로 하는 등의 돈가안정 대책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기로 했다.

본회는 지난 3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김건태 회장 주재로 김동환·최영렬·이병모 부회장, 건국대 정찬길 교수, 정p&c연구소 정영철 소장, 김종인 유니푸드대표(1차육가공업체)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돈가안정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 모든 1만두를 모아 정부에 기증기로 하고, 위축돈 및 체중 미달돈 조기도태로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값 하락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농가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및 사료대금 상환 연기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정부에 돼지 수매를 실시하고, 정부수매 돼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캔제품으로 가공처리 후 대복지원 등 대외소진을 정부에 요청기로 했다.

양돈관련업체에 돈육 수입 중단 요청기로

- 회장단, 돈가안정대책 등 논의

본회는 3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김건태 회장을 비롯,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 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 돼지 값 안정을 위해 도태모든 1만두 수출을 추진기로 하고, 수출가능

성 타진 등을 위해 최영렬 부회장을 3월 25일~28일까지 4일간 업계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에 파견키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TV광고 조기 추가방영 실시, 돼지 수매 후 수매물량을 국의 소진, 돼지고기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실시, 생산자단체 중심의 무료 시식회 실시 등을 오는 3월 21일 양돈수급안정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 수입업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수입업체에 수입을 자제 해줄 것과 특히, 수입업체 중 양돈관련 업체에는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한편 회장단은 등급관정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징수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또 돼지콜레라 공제제도를 04년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돼지고기 판매가 인하 및 할인행사 개최 요청

- 농림부·농협·소비자단체 등에

본회는 지난 3월 13일 농림부, 농협중앙회,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돼지고기 판매가격 인하지도 및 할인행사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소비자가격이 산지가격과 연동되지 않아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되어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일선 돼지고기 판매장의 가격 인하 지도와 할인행사를 통해 적절한 돼지고기 가격 형성으로 돈가 회복을 통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서울지역 삼겹살 실제판매가와 소비자권장가를 비교해보면 소비자권장가는 800~90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판매가는

1,100원대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지의 경우 소비자권장가는 지난해 9월 이후 400~45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판매가는 500~600원대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태 회장 DDA 협상차 제네바 방문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전업농중앙연합회 엄성호 회장,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최성희 회장 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원단체장 6명은 2월 24일부터 3월 2일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도하개발아젠다(DDA) 농협협상 세부 원칙 1차 초안논의에 참석했다.

농단협 회원단체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농민단체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김건태 회장, 외국인연수사업운영협의회 위원 선정

농협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은 지난 3월 13일 외국인농업연수사업의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기관인 연수사업운영협의회 의 구성위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농업연수사업에 착수했다.

강대련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단장을 위원장으로 한 연수사업운영협의회는 본회 김건태 회장,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농림부 농촌인력과 정황근 과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사업운영협의회는 앞으로 송출기관 선정, 송출기관별 인원 재배정, 연수업체 선정 및 추천, 연수관리비 등 연수사업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된다.

해외연수생 도입시 방역 대책 마련 요청

- 송출기관, 가축질병유입 방지대책 마련 의무와
본회는 지난 3월 7일 양돈 및 축산농가들의 농
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시행되는 해외
산업연수생제와 관련해 해외가축질병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
청했다.

본회는 양돈 및 축산농가는 상반기부터 실시되
는 해외산업연수생 도입을 환영하고 있으나 2000
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과
같이 혹시나 해외 가축질병이 유입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는 해외가축질병유입을 막을 수 있도
록 해외연수생 추천 송출기관으로부터 가축질병유
입 방지대책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일본뇌염백신 양돈농가 적기 공급 요청

본회는 지난 3월 13일 일본뇌염백신이 양돈농가
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요청했다.

매년 3~4월은 일선 양돈농가에서 일본뇌염백신
을 접종하는 시기임에 따라 일선 양돈농가에서 동
백신을 적기에 시술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백신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회는 적기에 동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일선 양돈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백신을 구
입하여 시술하고, 이후에 공급된 관급 백신을 폐
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의 효율적인 활

용을 위해 현시점에서 동 백신이 양돈농가에 공급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요청했다.

양돈장 입구 소독실 설치 지원 요청

- 전체 지원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농장부터 보조
본회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양돈장 소독시설 설치를 통한
차단방역이라고 생각하고, 일선 농가에서 저비용
및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돈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현재 다수의 소규모 양돈농가는 재정적으로 열악
하여 정문 소독시설이 없는 상태이다.

본회는 소독실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농가가 공
동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체 지원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농가부터 보조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검정소 중장기 발전 테스트 포스팀 구성

- 검정소 발전 중장기 대책 마련키로

본회는 중장기적인 검정소 발전을 위해 양돈업
계 전문가 등 8명으로 테스트 포스팀을 구성하고
3월 11일 첫 회의를 연다.

본회는 지난 2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검정소
발전위원회(회장 이병모)를 개최하고, 제1검정소
와 2검정소, SEW사업장의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
안에 대한 대책 및 검정소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

이날 검정소 발전위원회에서는 구제역 등 전염

병으로부터 우수 유전자와 검정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식이 중단된 SEW사업장의 활용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SEW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3월 3일 돼지고기 소비홍보 적극 나서

-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돼지고기, 우리가 소비하고 권합시다”

최근 양돈네티즌을 중심으로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로 지정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본회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3월 3일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에 나섰다.

본회는 이를 위해 ‘3월 3일 양돈인·양돈산업 관련분들 실천사항’을 정해 이를 언론사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부회원들에게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양돈농가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홈페이지 100만명 돌파 이벤트” 성황리 마쳐

- 이광재씨 복돼지상당점 등 32명에 경품 증정
- 양돈농가 및 관련단체·기관·업계, 일반인 등 총 853명 참여

지난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 행사가 양돈농가 및 관련 기관·단체·업계, 일반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본회는 지난 1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그 동안 본회

홈페이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총 18일간 설문조사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벤트 행사에는 양돈농가 382명을 비롯, 축산 관련기관·단체, 업체, 일반인 등 총 853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 속에 이뤄졌으며, 이중 경기 고양시 소재 이광재(양돈업)씨가 복돼지상인 디지털카메라 당첨되는 등 총 32명의 네티즌들이 경품에 당첨되었다.

양돈관련 업체 대표·양돈 PM 초청간담회 성료

- 축산기까지 대표·양돈 PM 등 80여명 참석

본회가 지난 3월 12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료·동물약품업체 양돈 PM 및 축산기자재 대표 초청 간담회’가 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속에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안기홍 전무가 ‘최근 양돈업계 제도변화 동향과 대응 전략’, 김동성 상무의 ‘최근 양돈경기 동향과 전망’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랜드 김교연 부장이 ‘이랜드 지식경영 사례’ 특강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22페이지 참조〉

제1검정부 '02년 최우수종돈장에 포천종돈 선정

- 우수종돈장엔 경기양돈, 오박종돈

2002년 한해동안 본회 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부(경기 이천)에서 실시한 검정결과, 최우수종돈

장에 포천종돈(대표 양상열), 우수종돈장에 경기양돈(대표 이윤원), 호박종돈(대표 김창환), 모범종돈장에 문경 FINE(대표 이경록)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종돈장은 지난 1년동안 최우수돈 횡수, 선발지수, 합격두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각각 선정됐다.

제2검정부 '02년 최우수종돈장에 보광축산 선정

- 우수종돈장엔 경기양돈, 풍원종축

2002년 한해 동안 본회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에서 실시한 검정결과, 최우수종돈장에 보광축산(대표 김성찬), 우수종돈장에 경기양돈(대표 이윤원), 풍원종축(대표 최종대), 장려종돈장에 다원종돈(대표 양상열), 모범종돈장에 송림종돈(대표 장필환)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종돈장은 지난 1년동안 최우수돈 횡수, 선발지수, 합격두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각각 선정됐으며, 시상은 지난 3월 10일 제 2검정부 151차 경매일에 실시됐다.

제1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71만원

지난 2월 20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부(경기 이천) 제 222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71만원으로 나타났다.

122두의 합격돈이 상장되어 117두가 낙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82만6,753원(77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0만2,500원(40두)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경 FINE(대표 이경록) 듀록 수컷(선발지

수 271점) 슈퍼돈이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소재 당진AI센터 이제만씨에게 최고가 3백50만원에 낙찰됐으며, 호박종돈(대표 김창환)에서 출품한 요크셔 슈퍼돈은 1백30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부 검정돈 낙찰가 평균 95만원

지난 3월 10일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부(경남 하동) 제 151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격이 95만원으로 나타났다.

150두의 합격돈이 상장되어 149두가 낙찰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평균 낙찰가는 106만9,310원(116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2만4,545원(33두)으로 나타났다.

이날 풍원종축(대표 최종대) 대요크셔 수컷(선발지수 270점) 최우수돈이 슈퍼돈을 제치고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소재 문석기씨에게 최고가인 3백50만원에 낙찰됐다. 한편 경기양돈(대표 이윤원) 듀록 수컷(선발지수 270점) 슈퍼돈은 3백20만원에 낙찰됐다.

본회, 직원 워크숍 개최

- 연장 체험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본회는 양돈 현장 및 농장체험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회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3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직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은 첫째날 본회 정종극 이천지부장 농장을 방문하고, 양돈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저녁에는 양돈장 관리 사례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둘째날은 안성 일죽 종합처리장을 방문, 도축 및 육가공 과정을 살펴보는 등 이번 현장 체험 수

련회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회 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본회는 최근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3~5월에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비상조를 편성하여 3월 4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홍성지부, 액비 유통센터 활용방안 모색

홍성지부(지부장 정일희)는 지난 3월 17일 지부 사무실에서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본회 회원들을 비롯해 홍성군 신임 축산과 최정환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액비 유통센터 활용방안 및 분뇨자원화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함안지부, 구제역 등 방역교육 실시

함안지부(지부장 함연수)는 지난 2월 27일 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위험 시기를 맞아 방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특별방역기간을 맞아 기술센터 위생계장의 농가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축협 AI센터 소장과 인공수정 관련 질의 응답시간이 있

었다.

또한 진주산업대 교수로부터 최고양돈경영자과 정입학생 모집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다.

서산·태안지부, PED·TGE 예방대책 세미나 개최

서산·태안지부(지부장 윤석환)는 지난 3월 11일 덕산관광호텔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부 분기별 세미나 추진계획과 협회 자금 방안 등에 대한 협회 주요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최근 발생이 잦은 PED 및 TGE 예방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화순지부, 질병교육 및 출하상담 가져

본회 전남 화순지부(지부장 박용수)는 지난 2월 24일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유행성설사병에 대한 질병교육과 앞으로의 돈가전망에 대해 퓨리나 지역 부장 정권성 수의사로부터 강의가 있었다.

또한 농협중앙회 나주축산물공판장 판매과 이진욱 과장의 출하상담도 함께 있었다.

상주지부장에 남명주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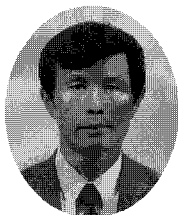


남명주 상주지부장

경북 상주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지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남명주(47)씨를 신임 상주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상주지부장으로 선출된 남명주씨는 경북 상주시 서곡동에서 모돈 310두

규모의 서곡양돈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연천지부장에 윤상협씨 선출



윤상협 연천지부장

경기 연천지부는 지난 2월 17일 지부사무실에서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윤상협(48)씨를 신임 연천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연천지부장으로 선출된 윤상협씨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서 3,000두 규모의 윤농원을 경영해오고 있다.

안성지부장에 김상수씨 선출



김상수 안성지부장

경기 안성지부는 지난 2월 22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상수(44)씨를 신임 안성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안성지부장으로 선출된 김상수씨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에서 1,100두 규모의 애수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하남광주지부장에 손무씨 선출



손무 하남광주지부장

경기 하남광주지부는 지난 1월 15일 지부사무실에서 3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무(61)씨를 신임 하남광주지부

장으로 선출했다.

하남광주지부장으로 선출된 손무씨는 경기도 인천시 설성면 송계리에서 보람양돈영농조합법인을 설립·경영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감사에 한민이씨, 총무에 허규행씨를 각각 선출했다.

철원지부장에 성시명씨 선출



성시명 철원지부장

강원 철원지부는 지난 2월 7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시명(52)씨를 신임 철원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철원지부장으로 선출된 성시명씨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소재 2,000두 규모의 광성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서산태안지부장에 윤석환씨 선출



윤석환 서산태안지부장

충남 서산태안지부는 지난 2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윤석환씨를 신임 서산태안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서산태안지부장으로 선출된 윤석환씨는 충남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소재 1,700두 규모의 서룡농장을 경영해오고 있다. 양돈

